buddhanews.com

‘대승사론현의기’ 진면목 찾기 ‘진일보’

최연식 교수 교감본 펴내… 기존판본 오류 바로잡고 ‘백제찬술’ 주장

현존 최고(最古)의 불교 문헌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는 중국 삼론학 개론서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 년 앞선 한국 최고의 문헌인 까닭에 한국불교사에서 <대승사론현의기>의 위상은 높다.

<대승사론현의기>는 편찬되던 당시의 불교 풍토와 사상적 경향 등을 알려주며 한국 고대 삼론학을 통해 삼국시대 불교의 실체를 전했지만, 많은 결락과 오 · 탈자 등으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불광출판사 刊)를 펴냈다.

최 교수는 책에서 현전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여러 필사본들을 검토해 기존 판본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특히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초장중가의(初章中假義)>편 사본의 내용을 소개해 본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를 펴낸 최연식 교수.

최연식 교수는 “교감 과정에서 현존하는 필사본들이 제작될 당시에 이미 판독불가한 상태의 글자들이 적지 않았고, 필사자들도 자신이 적는 내용을 모르고 베껴 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아직 불완전한 교감본이지만 현존하는 자료들을 모두 비교 · 대조해 판독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필사본들의 오류 경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교수가 주장하는 백제 찬술설과 한 저명한 일본학자가 주장한 신라 찬술설이 갑론을박을 펼쳐 화제가 됐었다.

당시 행사에서 50여 년 간 <대승사론현의기>를 연구해 온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는 권말의 식어(識語) ‘현경 3년(顯慶3年)세차무오년(歲次戊午年, 658)십이월육일(十二月六日) 흥륜사(興輪寺)학문승 법안(學問僧法安)위대황급내전고경봉장야(爲大皇及內殿故敬奉章也)’를 근거로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에서 찬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기존의 백제 찬술설이 옳다는 반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이토오 교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흥륜사가 신라사찰인 것은 맞지만 이런 식어가 나오는 것은 이 책 뿐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면 황제에게 바친 책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없었을 리 없다”며 이토오 교수를 반박했다.

최연식 교수는 “원효, 의상이 백제 보덕 화상에게 열반학을 배웠듯이 백제의 저술이 신라로 전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대승사론현의기>가 신라 흥륜사에서 전해졌다고 해도 신라에서 저술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이토오 교수 등의 백제 찬술설의 비판에 대한 반론과 찬자(撰者) 혜균의 행적과 저술에 대한 해제 ‘<대승사론현의기>와 한국 고대 불교사상의 재조명’이 수록됐다.

한 불교학자는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는 백제불교를 위시한 한국 고대불교의 선진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한편, 피상적 이해에 머물던 백제의 불교사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제부터 ‘국보’로 불러주세요”

문화재청, 안동 봉정사대웅전 국보 제311호로 승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안동시 봉정사에 있는 보물 제55호 봉정사대웅전을 국보 제311호로 승격 ·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국보 제311호로 승격 · 지정된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로 승격된 ‘안동 봉정사대웅전(安東 鳳停寺大雄殿)’은 건축양식에서 힘 있고 가식 없는 공포(拱包) 수법과 고식(古式)의 가구(架構, 나무로 짜여진 구조) 형식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多包, 기둥머리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 올린 공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고려 시대의 양식의 단청이 잘 보존돼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확실한 건립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래에 대웅전 해체수리를 하면서 “조선 세종17년(1435)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했다”는 <법당중창기> 등 4종의 묵서(墨書)가 새로 발견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중창연대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됐다. 건물과 단청의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역사 · 예술 ·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 ·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 ‘방법론’으로 길을 묻다

김호성 교수 ‘불교해석학 연구’ 펴내… 논문 6편 실어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이는 불교학도 마찬가지이다.

<선가귀감>에 ‘교(敎)는 부처님 말씀(敎是佛語)’이라 했다.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진의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학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의 방법론은 불조의 혜명(慧命)에 다가서는 수행법과 진배없기에 불교해석학은 중요하다.

동국대 김호성 교수가 최근 <불교해석학 연구>(민족사 刊)를 펴냈다.



‘불교해석학 연구’와 저자 김호성 교수.



김 교수는 △경전의 무거움과 해석의 가능성 △자기쳘학의 제시를 위한 전통적 불교학의 해석학적 장치들 △‘저자의 부재’론과 실천적 독서법 △여러가지 독서법에 의지한 해석의 사례 △일음교(一音敎)와 자기쳘학의 글쓰기 △텍스트와 현실의 해석학적 순환 등 5편의 논문과 1편의 보론을 통해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정리했다.

게재된 6편의 글은 <바가바드기타>의 주석자였던 틸락(L. Tilak, 1956~1920)이 인용했던 미망사 학파의 해석학이론에 여섯 가지 주제 파악의 방법론에 의지해 서술됐다.

특히 김호성 교수는 저서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던 의상(義湘, 625~702) 스님의 사례에서 ‘저자의 부재(不在)’를 지적하며, “실천적 독서법을 통해 모든 책의 저자는 독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서 벽화 조각 등 출토

부여博, “백제 회화사 연구에 중요 자료될 것”

부여 임강사지 건물터에서 벽화 조각 등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

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4월 23일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건물터 1기를 확인하고 벽화편과 기와, 금동제 장식편 등을 출토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건물터 내부에서 발견된 백제편 일부는 건물 내벽에 벽화가 그려졌음을 추정케 한다. 함께 발견된 연화문 수막새와 금동제 장식편 등은 백제의 첨단 공예 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윤용희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백제 벽화편으로는 1942년 부소산사지 출토품이 유일했으나 발견 당시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았다”며 “임강사지 출토 벽화편은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확실한 백제 층위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백제 회화사 등의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서 출토된 벽화조각.

학술 문화재 소식

‘즉득왕생’ 등 설명 성본 스님 특강



“염불수행과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관법수행 등 정토종의 수행법은 지금 여기서 자기 본성을 깨닫는 자각종교 차원에서 주장됐다.”

성본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 사진)은 7월 10일 계간 <불교평론>이 개최한 제10회 ‘열린논단’에서 ‘정토사상의 이해와 실천수행’을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특강에서 △아미타불과 서방극락 정토는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먼 곳에 존재하는 정토인가?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인가? △임종 시 곧바로 안락국토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는 의미와 즉득왕생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성본 스님은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는 불교 사상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정법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학술상 후보자 접수 한국종교문화硏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정진홍)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학술상’ 후보자를 접수 받는다.

학술상은 종교학 연구자의 연구의욕 진작을 위해 올해 제정됐다. 종교학 연구자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고, 종교문화연구소 회원 일반 추천이나 학술상 심사위원의 특별추천을 받은 연구자 중 2인을 선정해 우수저역서상과 우수논문상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상금은 각 100만원. 후보자 추천은 10월 24일까지, 학술상 시상은 11월 21일이다. (02)886-2480 조동섭 기자

고려불화 日서 발견 ‘미륵변상도’

일본 교토박물관은 “교토 묘만지(妙滿寺)에서 고려시대 조성된 불화를 발견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이 불화는 가로 1.3m 세로 2.3m 크기로 미륵불이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미륵대성불경변상도’다.

화기에는 궁정화가 이성(李晟)이 지원(至元) 31년(1294) 불화를 그린 것으로 돼 있다. 또 이성은 ‘화문한서(畵文韓署)’라는 궁정회화 제작기관 소속이라고 쓰여 있다.

박물관 측은 “‘화문한서’라는 기록은 고려 왕실에 회화제작 기관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작 연도가 밝혀진 고려불화로는 ‘김의인발원오백나한도(金義仁發願五百羅漢圖, 1235~1236년)’와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 128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문·사·철 여름호 발간 ‘20C 불교학자’ 기획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이 최근 2009년 여름호(통권 제17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기획연재 ‘20세기 인문학자 불교학자’ 편에 ‘조선미학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고유섭’(장석영)을 비롯해 ‘북조불교에 나타난 발해인에 관한 소고’(오지연) ‘고구려 승랑 사상의 범위’(김영일)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승보(僧寶)가 되십시오!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慈悲無敵

- 청담 스님 글 -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마가스님의 안내로 진행되는
붓다의 리더쉽 “자비명상 지도자”로 초대합니다.

화가 많고 급하신 분!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공개강좌 : 9월 9일(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 기간 : 9월 9일 부터 8주간(매주 수요일 오후 1 ~ 4시, 30시간)
집중 교육 : 11월 중 3박4일 집중훈련(30시간)
보강 교육 : 월1회 10회(40시간 / 중앙대 내마음 바로보기 참관)
총 교육 시간 : 100시간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내외
수 강 료 : 200만원(1년 과정)

문의 : 041)622-1190 (천안 만일사) / cafe.daum.net/jurira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